

화순만연초, 학생 저자와 함께하는 책 읽는 한무릎 독서 동아리

풍요로운 아침 독서 통한 '독서인문교육' 확대 만연사서함 '누가 소리를 질렀어' 외 9권 발간

화순만연초등학교의 그림책 동아리인 만연사서함의 학생저자가 아침 시간에 본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작품을 읽어주는 '학생저자와 함께하는 책 읽는 한무릎' 운영을 하고 있다.

햇수로 사 년째 접어들고 있는 만연사서함(지도교사 박하나)은 2020년에는 <누가 소리를 질렀어>의 9권을 발간한 이후 꾸준히 활동해오고 있다. 본 동아리 활동을 통해 출판사가 주관하는 아동 문학상에서 대상을 받는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도 있었다.

만연사서함 학생 저자들의 작품은 현재 e북으로 발간되어 관심 있는 학생들이 읽고 있다고 한다. 학생 저자들은 서로의 작품에 대해서 토론하는 과정을 넓혀서 자신들의 책을 학생들에게 읽어주고 느낌과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 저자들은 아침 독서 시간을 통해 각 반 교실로 찾아가서 책을 읽어주는 독자와의 만남을 가졌다.

회장인 이○○(6학년)은 "제 작품을 읽어준다는 것이 두렵고 설레기도 했어요. 제 책을 읽어준 후 3학년 동생이 실제로 일어난 일

이냐고 물어 보더라구요. 그 말을 들으니 뿌듯한 기분이 되었어요."라고 소감을 밝혔다.

학생 저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은 학생들은 직접 글과 그림을 그리는 게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해내는 모습을 보니 대단해 보였다고 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만연사서함 학생 저자들은 더욱더 좋은 작품을 쓰겠다는 다짐을 했다.

화순만연초 김미숙 교장은 "우리 학교의 한무릎 책읽는 독서동아리는 지도교사와 학생들이 토요일에도 학교에 나와서 독서하고, 서로 토론하고, 책을 쓰는 활동을 통해 좋은 작품이 나온 결과이며, 이런 학생들의 활동을 기반으로 전남교육이 추구하는 독서인문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기자



전남교육청, 돌봄교실 안전 체제 구축 나서



전남남도교육청이 지난 23일 전남남도경찰청 열린회의실에서 해당 부서 담당자와 협의회를 갖고 전남 저녁돌봄 참여 학생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협의회는 지난 16일자지경찰위원회 협

의회에서 저녁돌봄 운영 학교(18:30~19:00 학교 학교)에 대한 순찰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전남남도경찰청 해당 부서들과의 구체적인 협의를 하기로 함에 따라 열린 것이다.

전남경찰청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과, 교통과, 112차안중합상환실 등 4개 부서 담당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저녁돌봄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저녁돌봄 참여 학생 안전 관리를 위한 학교와 인근 경찰서 및 지구대 간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김재환기자



강진교육청, 등굣길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강진교육지원청은 지난 22일 학년초 학교폭력·휴먼 예방 및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신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안전을 점검하고 학생들이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강진교육지원청, 강진경찰서, 강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합동으로 진행되었다.

지난 22일은 강진고·강진여중에서 진행

된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아침에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건강과 안전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다.

강진교육지원청은 이번 캠페인 외에도 3월 14일(화)부터 신학기 맞이 다중 이용 시설 및 취약 지대 학생 생활 점검을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육공동체 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진=김영일기자

무안중-무안교육청 Wee센터, '행복한 신학기 상담주간' 운영



무안중이 신학기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위해 무안교육지원청 Wee센터의 협조를 얻어 집중적인 학생·학부모 상담을 실시하였다.

무안중은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을 <행복한 신학기 상담주간>으로 운영했다.

심리검사와 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3월15일부터 17일까지는 가정방문을 희망하는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밀도있는 상담을 실시하였다. 3월 20일에는 정남일 성폭력에 방전문강사를 초청하여 강연을 가졌다.

3월 21일에는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음토닥'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수업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 간이심리검사를 실시하고, 림보 등의 게임활동, 우정 포토제니, 핸드폰 그림톡 만들기 등을 통해 신나면서도 유익한 상담시간을 가졌다.

3월 23일에는 Wee센터 홍보를 겸한 등교맞이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텀플러를 학생들에게 나눠주며 고민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Wee센터

를 찾아주라고 안내를 하였다.

이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학기 적응력 향상을 위한 교우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자신과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관계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서로를 더 아끼고 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처럼 보건교사는 "학생들이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신학기를 안전하고 즐겁게 보내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학생 학부모들과 소통을 통하여 학생들의 고민을 해결하여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무안=이기성기자

광주동부교육청, '2023학년도 수학여행 컨설팅 지원단' 협의회

다양한 수학여행 준비하는 학교요구 반영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이 지난 23일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운영을 위한 '수학여행 컨설팅 지원단' 협의회를 실시했다.

지난 24일 동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협의회는 수학여행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지원을 위해 진행됐다. 현재 코로나19 이전으로 일상회복 분위기에 맞춰 다양한 수학여행 구성 및 행정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학여행 컨설팅 지원단'은 교원과 행정실장 등 20명으로 구성돼 학교 수학여행 업무 관

련 지원을 맡는다. 앞으로 이메일 및 전화, 방문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컨설팅 희망학교를 도울 예정이다. 사전 수요조사 결과 초등학교 88교를 비롯해 중등학교 38교, 고등학교 36교, 특수학교 2교가 컨설팅을 희망했다. 이번 결과는 컨설팅 지원단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준 것이다.

동부교육지원청 정성숙 교육장은 "이번 컨설팅 지원단 활동을 통해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이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수학여행 정상화 등 코로나19 이전으로 일상회복을 위



해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junsol@junsol.com